

불서와 함께 여름속으로



향기로운 삶을 향하여

■ 산에는 꽃이피네
저자 법정스님은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살던 주인 없는 오두막을 빌려 홀로 발을 일구며,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하고 있다. 법정스님의 법문을 가려뽑아 엮은 이 책은 무더운 여름날 산사 썸터의 찬물 한모금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다. 무엇보다 이 책은 소책자라도 출간돼 여행중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읽을 수 있다. 게다가 법정스님의 육성 테이프도 최근 출판돼 여행중 차에서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어 즐거움을 더해 준다. (동쪽나라 판, 법정스님 지음, 값 7천원)

동·서양 철학과 대화

■ 승려와 철학자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와 태베트 승려가 네팔의 어느 산속에서 만나 삶에 관한 지적인 대화를 나눈다. 열흘간의 대화를 통한 동양불교와 서양철학, 행복과 고통 그리고 삶과 죽음에 관한 진지한 성찰... 서양 철학자 아버지와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 아들이 나눈 대화를 수록한 대담집. 동양과 서양, 삶과 사상, 휴머니티와 과학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할만큼 강한 흡입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을 중요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제공한다. (창작시대 판, 장프랑수아 지음, 값 1만2천원)

무소유 삶이 주는 자유

■ 거지성자
낡은 누더기, 작은 손수레, 보자기, 실과 바늘은 독일 필른의 거지 페터 노이아르씨가 가진 것의 전부다. 숲속의 나무 밑에서 자고, 하루 한끼만 탁발로 무소유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이야기속에는 언제나 동서양의 수

여름휴가 길에 불서 한권 손에 들고 떠나자. 휴가지에서 심신을 즐겁게 하는 것도 좋지만 푸른 숲 넓은 바다를 책상 삼아 불서를 펼쳐보자. 마음을 맑히고 무더위를 탈출하는 쾌감은 방법일 것이다. 올 여름휴가에는 자칫 피곤을 달고 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듬뿍 담긴 불서의

바다에 꼭 빠져보자. 책의 바다에 빠지는 것은 무슨 큰 준비가 필요한 것도 없다. 다만 좋은 불서 한권이면 족하다. 좋은 책은 좋은 도반과 같다. 사찰과 자연속에서 책을 벗삼거나 한적한 집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지기에는 불서가 제격이다. 휴가철에 읽어볼 만한 불서 10권을 신간 중심으로 가려뽑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휴가철 벗삼아 읽을만한 불서신간 10권

많은 종교와 성인들이 등장한다. 나무하나 격지 않고 몸이 기생하는 버릇조차 잡지 않을 만큼 절제한 생명 존중을 실천하고 있다. 현대문명의 그늘속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일깨워 준다. (선재 판, 전재성 지음, 값 7천5백원)

암자에게면 '길'이 보인다

■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암자 순례기'와 '명상 산문'을 묶은 산문집. 더위에 지쳐 있을 때 시원한 암자를 떠올리는 것은 행복이 아닐 수 없다. 여름 휴가철이 코앞에 다가왔다. 휴가가 주는 의미는 그동안의 노고를 푸는 재충전의 시간이다. 저자거리의 편안함이나 편리함을 접어두고 나뭇잎에 내리는 고독을 친구삼아 자신의 질서를 지키며 수행하는 현장. 호젓한 암자를 찾아가 보자. 번잡한 유원지를 찾아 피곤을 달고 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암자에서 지친 마음을 누이고 마음을 맑여 주는 명상산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추스려 보는데 도움을 준다. (해들누리 판, 정찬주 지음, 값 8천원)

'내면의 나' 찾는 소설

■ 안으로의 여행
오랜세월 인도여행을 마친 후, 계룡산 감사 토굴에서 쓴 송기원씨의

첫번째 소설. 인도에서의 자기수행담을 소설의 형식으로 객관화한 이 책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을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 중년 남자가 '빈껍질(번뇌덩어리)'만 남은 자신을 벗어내기 위해 히말라야 설산을 떠돌며 참선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알맹이는 없고 빈 껍데기인 채로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설은 '나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인가'를 되새겨보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문이당 판, 송기원 지음, 값 8천원)

어떻게 살까 '모범답안'

■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티베트불교 대표 종단인 길복파의 성전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를 티벳 학승 초켈스님이 우리말로 번역한 이 책은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수행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석가 세존으로부터 용수와 무척으로 이어진 대승불교의 전통을 설명하고, 초발심에서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해 보살의 서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가르침을 듣는 방법과 가르치는 방법 '깨달음으로 가는 길' 등 총 4장에 걸쳐 진정한 생활불교란 곧 삶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불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모범답안이 될 것이다. (여시아문 판, 초켈스님 편역, 값 4천원)

시어로 만난 명산고찰

■ 백사백경
불교문화의 실상을 어디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지명하다. 사찰에 가보라. 특히 고찰이아말로 이 땅의 전통문화, 살아서 숨쉬는 불교문화의 현주소이다. 사찰 특유의 분위기, 고승들의 일화가 입체적으로 담겨 있는 명산고찰 가이드 시집. 사찰과 명산, 문명의 정화와 자연의 진수가 어우러져 만든 247편의 시는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미의 극치를 안겨준다. (불광 판, 박희진 지음, 값 7천5백원)

문화재와 사찰실화

■ 절따라 전설따라
사찰연기실화 현대적 조명에 넘나든 열의를 쏟고 있는 김승호 동국대 강사가 흥미롭고 서사성이 강한 36곳 사찰의 연기를 담았다. 이 책에 수록된 각각의 실화는 쉽게 읽고 흥미를 촉발할 수 있게끔 원형담에 상상과 윤색을 덧붙인 문화유산으로 읽는 사찰 연기실화이다. 문화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 전각이나 불상은 물론 절 자체도 하나의 문화재로 볼 수 있으므로

문화적 가치와 정신적 배경을 설명해 가면서 그와 관련된 연기를 들려주고 있어 암자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대원정사 판, 김승호 지음, 값 7천5백원)

온가족 불교예절 동화

■ 스님은 황금을 메고 어디로 갔을까
자녀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절에서는 왜 향을 피우는지요?" "절에 왜 도깨비집(천왕문)이 있나요?" 절을 찾는 어린이들이 흔히 품을 수 있는 의문들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물론 '절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불교는 어떤 종교인지' 등 기초적인 예절과 상식을 동화에 담았다. 이 동화책의 줄거리는 주인공인 세모와 그의 친구들이 사찰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스님들을 만나면서 차츰 불교에 대해 알아가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 간추린 불교 예절 상식 50문 50답이 수록. 절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예절 길잡이 역할도 한다. (다림 판, 김명만 지음, 값 6천원)

주머니속 한권의 선서

■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나
참선은 여름휴가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중에 하나다. 모든 생각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참선하기에 앞서 관련 선서한권 정도 읽어보는 것도 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에서 주머니속 대장경시리즈로 펴낸 '한글세대를 위한 선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나)는 선수행 지침서. (무문관)은 대답될 수 없는 물음을 향한 선의 전형적 접근이다. 이 문 아닌 문을 노크하여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어 보자. 휴가기간동안 각 사찰에서 열리는 참선수련회에 참가하는 불자들이 배낭속에 넣어갈 만한 책이다. (여시아문 판, 한철조 역음,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소설로 읽는 인도정신 한국인 정서와 상통"

인도문학 시리즈 펴내는
문이당 발행인 임성규씨



"인도는 먼 나라가 아니다. 우리속에 인도가 살아 숨쉬며, 인도정신은 이미 우리의 정신속에 녹아 흐르고 있다"
문이당 발행인 임성규씨(48)가 국내 출판계로서는 유일하게 인도문학 시리즈를 펴내는 이유다. 임성규씨가 인도소설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는

1973년 1월 김주영, 한승원, 이문구씨 등 11명의 작가와 함께 인도문학담사를 하면서부터다. 이 담사에서 임씨는 불교와 동양사상의 뿌리인 인도의 문학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매료됐다. '제3세계의 문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임씨는 그후 틈나는 대로 인도를 찾아 인도소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물론 불자라는 그의 정체와도 맞아 떨어졌다.

임성규씨는 "주제가 화려하다. 신변잡기가 아닌 삶과 죽음 등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소 난해한 느낌이 들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인도소설을 평했다.

문이당에서 번역 출간된 인도문학선 시리즈는 모두 5권. 93년 사랑하는 도시를 발견하기 위해 600여년의 시공과 역사 속을 여행하며 성자들, 시인들, 왕과 왕자들 등을 만나 현재 인도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재조명한 <델리 1·2>(쿠쉬와트 싱 지음)을 비롯 <불베이의 연인>(쇼바테 지음), <작은 것들의 신>(아룬다티 로이 지음), <나한아테>(마이트레이 데비 지음), <두번째 생각>(쇼바테 지음)이 바로 그것. 임씨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책은 <작은 것들의 신>. 임씨가 극찬하는 것은 언어의 묘미, 때문에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번역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놀라운 비유가 돋보이는 이 책은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을 수상했다.

문이당은 비크람세스의 <음악은 흐른다> 등 인도 소설을 끌어와 출간할 예정이다.

최근 송기원씨가 인도에서의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소설화한 <안으로의 여행>이 문이당에서 출간된 것도 임씨의 인도문학에 대한 남다른 노력의 산물이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번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문예춘
3	티베트에서 온...	주 민 환	정우사
4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5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전 재 성	해들누리
6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불교다너니
7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나	한 철 조	여시아문
8	선문환요	이 철 교	민족사
9	화엄의 길 생명의 길	도 법	선우도당
10	역주 수능엄경	일 귀	불 일

구입문의: (02)737-0695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됩니다.

-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 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24초)
 3. 아미타경(13분38초)
 4. 화엄경 약찬계(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심경(2분 49초)
 9. 무상경(4분 51초)
 10. 관음정진(10분02초)
 11. 금강경(33분15초)
 12. 반야심경(13분07초)
 13. 천수경(18분24초) ...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51초)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00초) ... 55. 회심곡(9분05초)
 56. 탑돌이(8분05초)까지 불자들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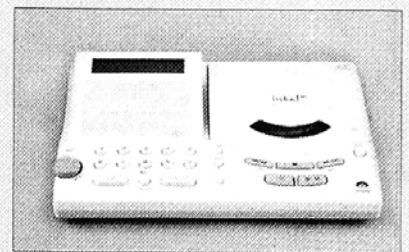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13번
① 변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매입니다.

- ◆ 듣고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 경내나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상업부성정



규격: W×D×H (26×18×65cm)

인켈에서 세계특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불교방송 ●

서울·경기 F.M 101.9MHz
부산 89.9MHz 광주 89.7 MHz
대구 94.5 MHz 전주 96.7 MHz

*모든 기능을 원터치로 쉽고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080-900-0101
032-343-2267

■주문방법: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배송방법: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 보급처 : 법운정사 흥법회